

'착한 임대운동' 건물주 재산세 감면

전주시,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 감면해주는 내용 담아 시의회 의결 후 시행키로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을 이끈데 이어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 감면키로 하는 등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에 화답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율해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본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종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들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 달 14일 전주 주요상권 6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전주 전역의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차례 실·국장, 과장, 동장들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동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상

인회, 건물주 등을 찾아다니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왔으며,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주형 상생실현인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흥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찬사를 보낸 뒤 오는 4월 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지역 섬유제조업체, '사랑의 마스크' 기탁

6개 업체, 3천만원 상당 면 마스크 3만장 전주시에 전달

전주지역 섬유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저소득 소외 계층에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전주시는 2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한춘자 한일섬유 대표를 비롯한 6개 섬유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뜻을 모은 6개 업체들은 마스크 풀귀현상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업체들이 합동으로 제작한 3000만원 상당의 면 마스크 3만장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주지역 섬유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에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시는 기증된 면 마스크를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로 거주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지역의 취약계층에 우선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주지역 중소기업들과 함께 산업단지 도로변과 사업장 등을 방역소독하는 '산업단지 일제소독의 날'을 추진하는 등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한춘자 한일섬유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업체들과 함께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병구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선사해주신

업체들에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스크 전달에 참여한 6개 섬유제조업체는 △한일섬유(대표 한춘자) △명성어패럴(대표 김명자) △예전실업(대표 정은희) △에스더실업(대표 오금순) △동진실업(대표 백영자) △대연재단(대표 서봉자) 등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코로나19 상황 종료될 때까지 경기전 관람료 할인

한옥마을 관광객 위해 입장료 50% 감면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여행객의 발길이 줄어든 전주한옥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경기전의 관람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시는 현재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의 관람료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50%로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보관돼 있는 경기전은 사적 제339호이자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 지난해 82만명, 하루평균 2000명 이상이 다녀갔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입장료로 △어른 30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전주시민은 △어른 10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 어른 기준 1500원만 내면 경기전에 입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유입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권과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협동조합 간담회' 추진

11~26일까지 총 20회 걸쳐 운영 시 애로사항 청취·지원사업 의견 수렴 진행

전주시가 협동조합의 성장을 돕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김창환, 이하 센터)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찾아가는 협동조합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주지역에서 활동중인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 운영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는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사

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 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성장을 돕기로 했다.

센터는 이를 위해 동별 거점장소를 마련하고 오는 5일까지 협동조합에게 간담회 일정과 장소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센터는 협동조합 전주소사를 통해 현황을 정비하고, 전주 시내 395개의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간담회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김창환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은 "이번 '찾아가는 협동조합 간담회'를 통해 권역별 협동조합의 네트워크와 내부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면서 "협동조합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전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해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관련 내용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281-9318, 931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찰청,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단속 특별단속팀 운영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제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로 지난 달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6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 도내 전 경찰관서(16개 경찰관서 56명)에 편성·운영된다.

또,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1개 팀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해 매크로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모니터링한다.

특히, 전북경찰은 특별단속팀을 비롯해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경찰활동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에 대한 도내 일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3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등 2건의 혐의를 입수, 수사중에 있다.

특별단속팀은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및 제조업자의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와 인터넷

상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또, 유관기관(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적극 공조해 첩보수집 및 단속 중이다.

긴급수급조정 조치란 판매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공적판매처로 일일 생산량 50%이상 출고 및 해외 수출 제한 등이다.

한편,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일부터 전주와 김제, 정읍 등 지역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아 경찰 근무자와 업체 관계자를 격려한 바 있다. /강석훈 기자

마스크 판매 허위글로 수천만원 가로챈 20대들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틈 타 '마스크 판매 허위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포털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43여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중고 판매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허위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36명으로부터 자신

이 만들어둔 5개의 계좌를 통해 10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실시간 위치추적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